

국 어

우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시험을 치르신 수험생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불어 다수의 수험생분들이 지방직 시험을 남겨놓고 있다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 막바지는 정신력이 승부를 가른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긴장감을 가지시고, 남은 시험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험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변화하고 있는 공무원 시험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한 시험이었다고 봅니다. 이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존의 공무원 기출 문제의 형태를 꼼꼼히 익히시되, 고등학교 문법 및 수능 유형들도 챙겨놓으시길 조언드립니다. 더불어 남은 시험 파이팅!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노량진 지안 공무원 신예 드림)

1. 다음 중 표준어로만 짝지어진 것은?

- ① 덩쿨 - 눈두덩이 - 놀이감
- ② 윗어른 - 호루라기 - 판지
- ③ 계면쩍다 - 지리하다 - 빠지다
- ④ 주책 - 두루뭇술하다 - 허드레

④ 두루뭇술하다(두리뭇실하다) 모두 표준어이다.

(오답풀이) ① 덩쿨(넙쿨)-복수표준어, 눈두덩이(눈두덩)-복수표준어(2014년), 놀이감-‘장난감’과 어감의 차이가 나는 별도의 표준어로 새로 인정됨.(2014년) ② 윗어른-‘위, 아래’쌍을 가지지 않는 단어는 ‘윗-’을 표준 형태로 삼는다. 판지-‘판죽’과 어감의 차이가 나는 별도의 표준어로 새로 인정됨.(2014년) ③ 계면쩍다(겸연쩍다) 모두 표준어이며, 빠지다(빠치다)-복수표준어(2014년)

2. 다음 중 <보기>의 설명에 해당되지 않는 단어는?

< >

접미사는 품사를 바꾸거나 자동사를 타동사로 바꾸는 기능을 한다.

- ① 보기 ② 낮췄 ③ 낮추다 ④ 꽃답다

② ‘낮췄다’의 어간에 명사형 전성어미 ‘-ㅁ’이 붙은 형태로, 전성어미는 단어의 형태를 바꿀 수는 있으나 <보기>의 설명처럼 품사를 바꿀 수는 없다. 품사는 여전히 형용사이다. ①번의 ‘-기’는 어미일 수도 있고 접사일 수도 있는데, ②번에서 품사를 변화시키지 않은 확실한 전성어미가 들어가 있으니, 정답은 ②번으로 하는 것이 안전하다 하겠다.

(오답풀이) ① ‘보다’의 어간에 접사 ‘-기’가 붙어 품사가 동사에서 명사로 바뀌었다. ③ ‘낮추다’의 ‘추’는 사동의 의미를 더하는 접미사로 ‘낮다(형용사)’를 ‘낮추다(동사)’로 바꾸었다. ④ ‘-답다’는 성질이나 특성이 있음’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로 ‘꽃(명사)’를 ‘꽃답다(형용사)’로 바꾸었다.

3. 국어의 음운 현상에는 아래의 네 가지 유형이 있다. <보기>의 (가)와 (나)에 해당하는 음운 현상의 유형을 순서대로 고르면?

- ㉠ XAY → XBY(대치)
- ㉡ XAY → XØY(탈락)
- ㉢ XØY → XAY(첨가)
- ㉣ XABY → XCY(축약)

<보기>

술+하고 → [숯하고] → [소타고]
(가) (나)

(가) (나) (가) (나)

- ① ㉠, ㉡ ② ㉠, ㉣
- ③ ㉡, ㉣ ④ ㉢, ㉡

② 현재 고등학교 문법에는 음운 현상을 크게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이렇게 4가지로 보고 있다. ‘술’에서 [숯]으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는 대표적인 교체(대치)로, [숯하고]→[소타고]는 자음 축약, 즉 축약으로 본다. 따라서, ㉠, ㉣이 옳다. 문법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다. 기존의 이론은 음운 현상을 ‘동화,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이렇게 5가지로 보고 있으나, 학교 문법 쪽에서는 4가지로 음운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조금 다른 이런 사항을 기억해 놓고 융통성 있게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겠다.

4.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① 차라리 얼어서 죽을망정 것불은 아니 쪼졌다.
- ② 마음에 걱정이 있을 지라도 내색하지 마라.
- ③ 그녀는 얼굴이 예쁜대신 마음씨는 고약하다.
- ④ 그 사람이 친구들 말을 들을 지 모르겠다.

① ‘-ㄴ망정’은 앞 절의 사실을 인정하고 뒤 절에 그와 대립되는 다른 사실을 이어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이고, 어미이기 때문에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오답풀이) ② ‘-ㄴ지라도’는 어떤 미래의 일에 대하여 ‘그렇다고 가정하더라도’의 뜻을 나타내는 어미이다. 따라서, ‘있을지라도’처럼 앞말과 붙여 써야 한다. ③ ‘대신’은 앞말이 나타내는 행동이나 상태와 다르거나 그와 반대임을 나타내는 명사이므로 ‘예쁜 대신’처럼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④ ‘지’가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가 아닌 경우에는 어미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ㄴ지’는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미이다.

5. 다음 중 국어의 형태적 특징은?

- ① 수식어는 반드시 피수식어 앞에 온다.
- ② 동사와 형용사의 활용이 유사하다.
- ③ 문장 성분의 순서를 비교적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 ④ 언어 유형 중 주어-목적어-동사 의 어순을 갖는 SOV형 언어이다.

② 국어의 특징 중 어휘상의 특성을 묻고 있는 문제이다. 동사

와 형용사는 어간이 변하지 않고 어미가 변하는 활용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활용이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다. 국어의 대표적 어휘상(형태상) 특징은 조사와 어미가 발달해 있는 교착어, 첨가어라는 점이다.

(오답풀이) ①, ③, ④는 국어의 통사적(구문상)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6. 다음 중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바르게 표기된 것으로만 묶인 것은?

- ① 서비스 - 소시지 - 소파 - 싱크대 - 팜플렛
- ② 리더쉽 - 소세지 - 싱크대 - 서비스 - 스카우트
- ③ 쇼파 - 썩크대 - 바다로션 - 슈퍼마켓 - 스카웃
- ④ 소파 - 소시지 - 슈퍼마켓 - 보디로션 - 램플릿

④ 모두 옳은 표기이다.

(오답풀이) ① 램플릿, ② 리더쉽, 소시지 ③ 소파, 싱크대, 보디로션, 스카우트

7. 다음 중 한글 맞춤법에 따라 바르게 표기된 것은?

- ① 철수는 우리 반에서 키가 열둘째이다.
- ② 요즘 재산을 떨어먹는 사람이 많다.
- ③ 나는 집에 사흘 동안 머무를 예정이다.
- ④ 숫병아리가 내게로 다가왔다.

③ ‘머무르다’를 적절히 활용했다.

(오답풀이) ①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사의 자리에 쓰일 때는 ‘열두째’가 맞다. ‘열둘째’는 양을 나타내는 양수사일 때 쓸 수 있다. ② 재산이나 돈을 함부로 써서 몽땅 없애다는 의미의 단어는 ‘털어먹다’이다. ④ 수컷을 의미하는 접두사 다음에 거센소리를 인정한다. ‘수평아리’가 맞다.

8. 다음 중 밑줄 친 단어의 한자로 가장 적합한 것은?

상실해버린 느낌을 지니고 성장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내가 기억나지 않는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꼬치꼬치 캐물을 때가 종종 있지요. 게다가 시골마을에서 벌어지는 일이 내 눈엔 참 이상했어요. 마당에다 애써서 기른 집짐승들을 잡아먹는 것도 이상했고, 겨울을 잘 넘기고 해동이 될 때면 마을에 상여가 나가는 일이 많은 것도 이상해서 계속 따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 ① 상실 : 喪失 ② 성장 : 盛裝
- ③ 이상 : 異狀 ④ 해동 : 解冬

① 상실(喪失: 잃을 상, 잃을 실): 1.어떤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거나 헤어지게 됨. 2.어떤 것이 아주 없어지거나 사라짐

(오답풀이) ② 문맥상 사람이나 동물 따위가 자라서 점점 커진다는 뜻이므로 ‘성장(成長: 이를 성, 길 장)’이 적절하다. ‘성장(盛裝: 성할 성, 단장할 장)’은 얼굴과 몸의 꾸밈을 화려하게

한다는 뜻의 단어이다. ③ 문맥상 지금까지의 경험이나 지식과는 달리 별나거나 색다르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상(異常: 다를 이, 항상 상)’ 옳다. ‘이상(異狀: 다를 이, 형상 상)’은 ‘평소와는 다른 상태’를 의미한다. ④ 문맥상 얼었던 것이 녹아서 풀린다는 ‘해동(解凍: 풀 해, 얼 동)’을 쓴다. ‘해동(解冬: 풀 해, 겨울 동)’은 불교에서 스님들이 겨울에 일정한 곳에 머물면서 수도(修道: 닦을 수, 길 도)하는 ‘동안거(冬安居)’의 끝을 이르는 말이다.

9. 다음 중 <보기>와 같은 서술 방식이 쓰인 문장은?

<보기>

포장한 지 너무 오래되어 길에는 흙먼지가 일고 돌이 여기저기 굴러 있었다. 길 양쪽에 다 쓰러져가는 집들, 날뽕팔이 일꾼들이 찾아가는 장국밥집, 녹슨 함석지붕이 찌그러져 있었고, 흙먼지가 쌓인 책방, 조선지와를 올린 비틀어진 이층집, 복덕방 포장이 찢기어 너풀거린다.

- ① 탈피 후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먹이를 먹고 자리를 떠났다.
- ② 앞은 어긋나게 붙고 위로 올라갈수록 작아지면서 뿔줄기를 감싼다.
- ③ 사람을 접대하는 것은 글을 잘 짓는 것과 같다.
- ④ 성장이 둔화되어 일자리가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② 제시문의 ‘길과 길 주변의 풍경’을 자세하게 하나하나 그림 그리듯이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앞이 붙은 줄기의 모습을 그림 그리듯이 묘사하고 있다. ②번은 잎사귀와 뿔줄기의 모습을 자세하여 설명하는 묘사의 서술 방식을 쓰고 있다.

(오답풀이) ① 곤충의 탈피 과정을 순서대로 서술하고 있다. ③ 사람 접대하는 일을 범주가 다른 글을 잘 짓는 일에 확장시켜 적용하는 유추(비유)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④ ‘성장 둔화(원인)’로 일자리가 늘지 않는 현실(결과)을 설명하고 있다.

10. 다음 문장들을 미괄식 문단으로 구성하고자 할 때 문맥상 전개 순서로 가장 옳은 것은?

- ㄱ. 숨 쉬고 마시는 공기와 물은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오염된 경우가 많고, 자원의 고갈, 생태계의 파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 ㄴ. 현대인들은 과학 기술이 제공하는 물질적 풍요와 생활의 편리함의 혜택 속에서 인류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 ㄷ. 자연 환경의 파괴뿐만 아니라 다양한 갈등으로 인한 전쟁의 발발 가능성은 도처에서 높아지고 있어서, 핵전쟁이라든가 터진다면 인류의 생존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 ㄹ. 이런 위기들이 현대 과학 기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과학 기술에 대한 지나친 낙관적 전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
- ㅁ. 오늘날 주변을 돌아보면 낙관적인 미래 전망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를 깨닫게 해 주는 심각한 현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① ㄱ - ㄷ - ㄴ - ㄹ - ㄴ ② ㄴ - ㄹ - ㄴ - ㄱ - ㄷ
③ ㄴ - ㄴ - ㄱ - ㄷ - ㄹ ④ ㄴ - ㄹ - ㄱ - ㄷ - ㄴ

- ③ 미관식이란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주지)가 글 끝에 오는 것이다. 이 글의 주지는 ‘과학 기술에 대한 지나친 낙관적 전망은 위험하다’이다. 글에서 뒤 문장들은 앞 문장의 내용을 반복하며 연쇄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더불어 일반론에서 구체화의 순서로 전개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③번이 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ㄴ. 현대인들은 과학 기술이 제공하는 물질적 풍요와 생활의 편리함의 혜택 속에서 인류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 ㄹ. 오늘날 주변을 돌아보면 낙관적인 미래 전망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를 깨닫게 해 주는 심각한 현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구체화) ㄱ. 숨 쉬고 마시는 공기와 물은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오염된 경우가 많고, 자원의 고갈, 생태계의 파괴는 더 이상 방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 ㄷ. 자연 환경의 파괴뿐만 아니라 다양한 갈등으로 인한 전쟁의 발발 가능성은 도처에서 높아지고 있어서, 핵전쟁이라도 터진다면 인류의 생존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 ㄷ. 이런 위기들(자연 환경 파괴 및 핵전쟁의 위협)이 현대 과학 기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과학 기술에 대한 지나친 낙관적 전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

11. 다음 글의 논리적 구조로 가장 옳은 것은?

인간의 특성 중의 하나로서 한 개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러한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사회적인 여러 제약들, 가령 정치적, 경제적 및 문화적 제도나 권위, 혹은 억압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 거리가 확보되면 될수록 개인은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소외당하며 동시에 안정성과 소속감을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전에 적나라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새롭게 나타난 고독감이나 소외감, 무력감이나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감행하게 된다.

- ① 원인 - 결과 ② 보편 - 특수
③ 일반 - 사례 ④ 주장 - 근거

- ① ‘A 그러나 B’의 구조에서는 주지(주장의 핵심)이 ‘B’에 나온다. 따라서 제시문의 주지는 개인들이 ‘고독감이나 소외감, 무력감이나 불안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감행한다는 것이다.’ 즉, 이 글은 개인들이 왜 소중한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감행하는 과정에 이르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인-결과’의 논리적 구조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오답풀이) ② ‘보편(일반)과 특수’의 관계로 보려면 ‘개별적이고 특이한 사례’가 나와야 하는데, 2문단에서는 그런 내용 전개는 확인할 수 없다.

12. 다음 중 서울을 주요 배경으로 한 소설이 아닌 것은?

- ① 박태원의 『천변 풍경』
② 염상섭의 『두 파산』
③ 박완서의 『엄마의 말씀』
④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

- ④ <당신들의 천국>은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소록도’를 배경으로 병원장과 환자들의 갈등을 다룬 소설이다. (오답풀이) ① 서울 청계천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서민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소설이다. ② 광복 직후의 서울의 혼란상을 정신적 파산과 물질적 파산 두 가지 측면에서 보여준 소설이다. ③ 서울 및 서울 변두리 현저동을 배경으로 한 연작소설로 전쟁의 아픔을 그려낸 소설이다.

13. 다음 밑줄 친 ㉠~㉣ 중 그 의미가 나머지 셋과 가장 다른 것은?

뭐락카노, 저 편 강기슭에서
㉠ 니 뭐락카노, 바람에 불려서
이승 아니몬 저승으로 떠나는 뱃머리에서
㉡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뭐락카노 뭐락카노
㉢ 씩어서 동아뱃줄은 삭아 내리는데
하직을 말자 하직을 말자
㉣ 인연은 갈발을 건너는 바람

- 박목월, <이별가> -

- ① ㉠ ② ㉡ ③ ㉢ ④ ㉣

- ④ 이 시의 화자는 사랑하는 ‘너’가 죽었고, 저승으로 간 ‘너’를 애타게 부르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승과 저승의 거리감으로 결국 나의 목소리나 너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날려 전달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둘의 인연은 끝나가고 있음을 인식했다. (㉠, ㉡, ㉢) 그러다가 생각을 변화시켜 비록 이승과 저승이 소통은 할 수 없지만, 죽어도 인연은 끊어지지 않고, 이편과 저편을 부는 바람처럼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고 있다.(㉣) 따라서, ④번이 답이다.

14. 다음 시조와 가장 유사한 정서가 나타난 것은?

방안에 헛는 촛불 놀과 이별 흥엿판디
것츠로 눈물 디고 속 타는 줄 모르노고
더 촛불 날과 갓트여 속 타는 줄 모르도다

- ① 이화에 월백하고 은한이 삼경인 제 / 일지춘심을 자규야 알라 마는/ 다정도 병인냥혀여 줌 못 드러 흥노라
② 혼 손에 막디 잡고 쫘 혼 손에 가식 쥐고 / 늙은 길은 가식으로 막고 오는 백발은 막디로 칠엿튼이 / 백발이 제 몬져 알고 지름길로 오건야
③ 이화우 흥썰릴 제 울며 잡고 이별 흥 님 / 추풍낙엽에 저도 날싱각는가 / 천리에 외로운 쉼만 오락가락 흥노매
④ 막을 사름들아 울흔 일 흥자스라 / 사름이 되어 나셔 울티웃

못하면 / ㅁ쇼를 갓 곳갈 쇠워 밥머기나 다르라

③ 제시된 시조는 임과 이별한 슬픔과 한을 ‘촉불(촉불)’을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계유정난(삼촌 수양 대군이 조카인 단종을 왕위에서 몰아낸 사건)을 겪으면서 느꼈을 안타까움과 임금(임)을 향한 충정이 담긴 시조이다. ③번 시조도 임과 이별하고 느끼는 안타까움과 그리움의 마음이 담긴 이별의 시이다.

(오답풀이) ① 아름다운 봄날이 끝나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여 잠 못 이루고 있다. ② 늙음을 막아 보려 하였으나, 막지 못하고 한탄하고 있다. ④ <훈민가>의 한 수로 올바른 행동을 하며 살 것을 권유하고 있다.

15. 다음에서 설명하는 훈민정음 제자 원리에 해당하는 것은?

, ㄷ, ㅅ, ㅈ, ㅊ 등을 가로로 나란히 써서 ㅅㅅ, ㅅㅈ, ㅅㅊ, ㅅㅅㅈ, ㅅㅅㅈㅈ, ㅅㅅㅈㅈㅈ 등을 만드는 것인데, 필요한 경우에는 ㅅㅅ, ㅅㅈ, ㅅㅊ, ㅅㅅㅈ, ㅅㅅㅈㅈ, ㅅㅅㅈㅈㅈ 등도 만들어 썼다.

- ① 象形 ② 加書 ③ 竝書 ④ 連書

③ 기본자를 옆으로 나란히 배열하면서 글자를 옆으로 이어 붙이는 것을 ‘병서(竝書: 아우를 병, 글 서)’라 한다. ‘ㅅㅅ, ㅅㅈ’ 등을 각자 병서라 하고, ‘ㅅㅅ, ㅅㅈ, ㅅㅊ’ 등을 합용 병서라 한다.

(오답풀이) ① 상형(象形)은 발음기관이나 하늘, 땅, 사람의 모습을 본떠서 만드는 것을 이른다. ② 가획(加劃)은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만든 것(ㄱ, ㅋ, ㄷ, ㅌ)등을 의미한다. ④ 연서(連書)는 순음(口, ㅁ, ㅂ) 아래 ‘ㅇ’을 이어서 쓰는 것을 이른다. (병, 8)

16. 다음의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과 가장 유사한 의미로 쓰인 것은?

<보기>
그는 집에 갈 때 자동차를 ㉠ 타지 않고 걸어서 간다.

- ① 그는 남들과는 다른 비범한 재능을 타고 태어났다.
② 그는 가야금을 발가락으로 탈 줄 아는 재주가 있다.
③ 그는 어릴 적부터 남들 앞에 서면 부끄럼을 잘 댔다.
④ 그는 감시가 소홀한 야밤을 타서 먼 곳으로 갔다.

④ ㉠은 ‘탈것이나 짐승의 등 따위에 몸을 얹다’는 의미로, 의미를 확장해 보면 어떤 것을 이용한다는 뜻으로 쓸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 가장 근접한 것은 야밤을 이용했다는 의미의 ‘야밤을 타다’이다. 나머지는 ㉠과 소리만 유사한 이의어들이다.

(오답풀이) ① 복이나 재주, 운명 따위를 선천적으로 지니다. ② 악기의 줄을 통기거나 건반을 눌러 소리를 내다. ③ 부끄럼, 노여움 등의 감정이나 간지럼을 느끼다.

17. <보기>의 홍길동 씨가 처한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한 한자성어는?

<보기>

홍길동 씨는 내일 열릴 동창회에 참석할 마음이 없었지만 친구들의 성화로 어쩔 수 없이 나간다고 약속을 했다. 그런데 당일 아침 갑작스레 배탈이 나서 도저히 동창회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는 동창회 총무에게 전화해서 사정을 설명했지만 상대방은 곧이곧대로 듣지 않고 동창회에 나오기 싫은 핑계라고 생각했다.

- ① 錦上添花 ② 烏飛梨落 ③ 苦盡甘來 ④ 一舉兩得

② ‘오비이락(烏飛梨落)’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뜻으로, 아무 관계도 없이 한 일이 공교롭게도 때가 같아 억울하게 의심을 받거나 난처한 위치에 서게 됨을 이르는 말이다. <보기>의 상황은 갑작스러운 배탈과 동창회 불참이 우연히 공교롭게도 겹치면서 난처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오비이락’이 자연스럽다고 하겠다.

(오답풀이) ① 금상첨화(錦上添花):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는 뜻으로, 좋은 일 위에 또 좋은 일이 더하여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③ 고진감래(苦盡甘來):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움을 이르는 말 ④ 일거양득(一舉兩得): 한 가지 일을 하여 두 가지 이익을 얻음

18. 다음 한자 성어 중 의미가 나머지 셋과 가장 다른 것은?

- ① 道聽塗說 ② 心心相印 ③ 拈華微笑 ④ 以心傳心

① ‘도청도설(道聽塗說: 길 도, 들을 청, 길 도, 말씀 설)’은 길에서 듣고 길에서 말한다는 뜻으로 길거리에 퍼져 돌아다니는 뜬소문을 이르는 말이다. 나머지는 모두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는 뜻이다.

(오답풀이) ② 심심상인(心心相印): 말없이 마음과 마음으로 뜻을 전함. ③ 염화미소(拈華微笑): <불교> 말로 통하지 아니하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일. ④ 이심전심(以心傳心):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

19. 다음 중 <보기>의 뜻으로 옳은 것은?

<보기>

털을 뽑아 신을 삼는다.

- ① 힘든 일을 억지로 함
② 자신의 온 정성을 다하여 은혜를 꼭 갚음
③ 모든 물건은 순리대로 가꾸고 다루어야 함
④ 사리를 돌보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통으로 먹으려 함

① 자신의 온 정성을 다하여 은혜를 꼭 갚겠다는 뜻이다.

20. 제시된 단어 중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여봐란듯이: 우쭐대고 자랑하듯이
- ② 가뭇없이: 보이던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아 찾을 곳이 감감하게
- ③ 오롯이: 모자람이 없이 온전하게
- ④ 대수로이: 그다지 훌륭하지 아니하게

④ ‘대수로이’는 ‘중요하게 여길 만한 정도로’의 의미이다.